



책읽는 가족 3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지음 | 김재홍 그림 | 푸른책들 펴냄

172x225 | 값 12,500원 | 개정판 1쇄 2009년 09월 10일

ISBN 978-89-5798-185-6 04850 | 208쪽

분야 - 국내창작동화, 역사동화 | 대상 독자 - 초등 고학년

주요 내용

『마사코의 질문』에는 일제가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소학교 교실에서 자행했던 잔인한 놀이를 통해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꽃잎으로 쓴 글자」, 공들여 짠 괴목장을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맞아 죽은 조선인 이야기 「방구 아저씨」,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조선인에 대한 괴소문들이 나돌았던 때에 일본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토대로 쓴 「꽃을 먹는 아이들」, 스스로 조센징이 아니라 황국 신민이라 생각하는 친일파 귀족의 아들 가즈오가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이야기 「남작의 아들」, 꽃다운 나이에 여자 근로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 여자들이 일본인 병사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이야기 「잠들어라 새야」, 일제에 의해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로 투옥되었다 생체 실험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 「앞새에 이는 바람」, 일본 천황이 행복한 날 쫓겨 가는 일본인 교장 선생에게 앙갚음하려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조선인 소녀의 이야기 「긴 하루」, 재일 교포 3세 소녀 사치코가 자신이 한국인임을, 사치코가 아니라 김행자임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흙으로 빛은 고향」,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에 간 일본인 소녀 마사코가 자신들의 원폭 피해만을 주장하는 할머니에게 미국이 왜 하필이면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는지를 묻는 내용의 「마사코의 질문」 등 모두 9편이 실려 있습니다.

읽기 전에

1.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라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3.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여러 가지 수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내용 확인 문제

1.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 조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재미있는 놀이'란 무엇이었나요?
2. <방구 아저씨>에서 일본인 산림관 히라노가 탐을 내는 백동 은나비 괴목장은 방구 아저씨에게 어떤 사연이 깃든 물건인가요?
3. <꽃을 먹는 아이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4. <남작의 아들>에서 '가즈오'와 '진석'은 왜 싸움을 했으며 화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5. <잘들어라 새야>에서 '나'의 상처 입은 몸과 영혼을 '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 주었나요?

6. <잎새에 이는 바람>에서 '서시'를 암송해 보세요.

7. <긴 하루>의 '순이'와 '순이 엄마'가 '데라우치 선생'을 도와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흙으로 빛은 고향>에서 '나'는 할머니에게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일본말을 하고 일본 학교에 다니면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9. <마사코의 질문>에서 '마사코'가 왜 미국이 일본에 '꼬마(핵폭탄)'를 터트렸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후 활동 자료

3.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을 왜 바로잡아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
(5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

4.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에 줄을 긋고 직접 한 번 따라 써 보세요.

5. 일본과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을 써 보세요. (3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

▣ 손연자 선생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Q 원작 동화에는 보기와 같이 프롤로그가 있는데 교과서에 실리면서 빠졌습니다. 원래 프롤로그를 쓰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프롤로그가 빠지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보기>

이 이야기는 나 오현지의 할아버지가 아홉 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말도 글도 못 쓰게 하면서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A 반세기가 넘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된 일제 강점기의 이야기를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말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의 말은 작품의 시대 배경을 아예 드러냄으로 어린 독자들을 낯설게 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것이 빠져서 작품의 감칠맛이 덜해졌다고 여겨집니다.

Q 승우와 엄마는 꽃잎으로 하늘, 별, 산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꽃잎으로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성당에 가면 제대를 꽃으로 장식합니다. 나는 모국어라는 제단에 처음으로 바치는 글자를 꽃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진 겨울을 지나 화사하게 피어나는 복사꽃으로, 그릇 중에 그릇인 백자에 담아서.

Q 이 동화를 보면 아이들을 괴롭힌 다나카 선생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선생님께서 일본인을 미워하라고 이 동화를 쓰지 눈 않으셨을 텐데요. 이 동화책을 보고 일본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A 나는 요즘 젊은 어른들이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도 악랄했던 과거의 일본을 (우리 어린이들이) 미워할까 봐 왜 그렇게 찢찢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말의 진실을 나는 믿습니다.

Q 방구 아저씨는 백동 은나비 장식이 화사한 괴목장이 '애들 엄마 목숨'이라면서 내놓지 않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아저씨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본인에게 대들며 괴목장을 지키는 것은 당시로서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세상을 살 때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불끈 저항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겁니다. 하물며 묵묵히 희생만 하다가 불쌍하게 먼저 간 아내 몫으로 처음 마련한 괴목장을 눈앞에서 빼앗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무엇이랴도 비굴하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게 나라라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Q 방구 아저씨와 이장 아저씨는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단순하게 연결시킨다면 이장 아저씨는 친일파에 속하겠지요. 살기 위해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덧입니다. 친일을 하고 산 사람도 같은 민족입니다. 다만 측은할 따름입니다.